

社說

대통령다운 처신을 기대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4번째로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1995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함께 재판을 받은 데 이어 23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이전 대통령이 같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서게 됐다.

검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한 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대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6개 혐의가 담겼다.

검찰이 밝힌 공소장을 보면 이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35억 원의 특별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 받는 상황에서 이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쓰여야 할 특별비를 보수정권 대통령들이 쓰지 않았던 것처럼 사적으로 사용하는 불법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소송비 585만 달러(68억 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뇌물액이 1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국회 의원의 공천헌금은 물론 중소기업인 과 종교인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내용은 입에 담기조차 힘들다.

검찰은 또 이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스에서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제기됐던 실소유주 의혹이 당시 수사에 서 사실상 드러났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국의원 특별회비나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모든 뇌물 혐의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 수사결과도 아니라고 잡아땀다. 특히 그는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구속된 뒤에는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법정에 서는 불행한 헌정사에 중지를 찍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각종 불법과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에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의원 특별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전 대통령도 마냥 '정치보복'이라고 치부할게 아니라 법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전 대통령은 그동안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의 자백과 다양한 증거자료에 의해 혐의의 실체가 드러나는데도 부인으로 일관했는데 이는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 자신의 잘못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진술한 사과를 기대한다.

제주도 4·3사건의 실체를 아시나요?

나일환 시인의 세상읽기



시인 한국지역 연합방송 회장

화조봉월(花鳥鳳月) 사월은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아 세월도, 인간사도 들뜨게 한다.

꽃피는 춘 사월 봄빛도 따스하다. 사월의 봄은 화사함만이 아닌 가슴 아픈 일들도 있다. 봄은 남쪽에서부터 온다. 봄을 가져다주는 섬, 제주도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풍광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한 많은 섬이기도 하다. 탐라국 제주는 역사적으로 보면 유배지로, 볼모지로 육지로부터의 차별과 냉대 속에 홀대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저항 의식이 유달리 강한 섬이기도 했다.

제주도는 외부로부터 오는 밀려오는 세력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것은 역사적·지리적으로 특수한 환경이 평안함 보다는 불안한 시대적 상황을 만들어내 피해와 고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돌아보면 구한말 방상철과 이재수의 난, 일제 시절 때 잡녀 투쟁, 제주 4.3 사건이 있다. 오늘은 우리의 불행한 역사로 인해 무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는 날이다. 현대사에 있을 수 없는 커다란 비극이다.

봄이 익어가는 사월에 눈이 내린다. 차가운 기운을 동반한 춘 사월의 기운이 차가운 날씨로 변해버려 봄을 만끽하는 상춘객들의 노여움을 산다. 그 노여움이 바로 제주의 노여움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꽃피는 사월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는 제주 4.3사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제주도민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제주 4.3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제주 4·3 사건은 8·15광복 이후 남침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선거에 반대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장봉기로 남도당 잔당과 조진압군의 양민을 대량 학살했던 사건이다. 당시 제주는 해방의 기쁨을 만끽 하지도 못하고 미군정에 대한 불만과 귀향한 제주도민들의 인구 증가, 실직사태, 흉년

으로 인해 사회적 기운이 흥흥했다. 또한 일제시절에 경찰들이 미군정 경찰로 활동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도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찰관, 우익 청년단체, 관리에 대해 민심이 요동을 치고 기록에 의하면 남도당 세포들인 제주도 4.3 봉기의 지휘자였던 김달삼의 지령으로 봉기의 진압군 사령관격인 박진경을 죽인 것을 시작으로 발생했다. 4·3사건은 역사적으로 제주 지역의 중앙 지배 권력에 시달려온 저항의식,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처절한 대응 등이 그 요인이 된 처절 하리 만큼 끈질긴 억압과 모순에 대한 저항의 역사적 배경이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제주 4·3 사건(濟州 4·3 事件)은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표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사태와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압군에 의한 희생자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 1,764명을 포함해 14,000여명이 사망했다고 제주 4.3특별법에 의한 조사결과에 밝히고 있다. 한 라산을 본거지로 하여 유격전형태로 계속되어 진압작전의 토벌대는 무차별 민

간인들과 유격대를 가리지 않고 집단 학살하여 수많은 인명이 학살했다.

제주 4.3사건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냉전과 분단의 아픔으로 일어난 4.3사건은 진압과정에서 평화가 절단나고 아름다운 풍광은 파괴되어 섬은 폐허가 되어 버렸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흘러버린 시간들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억울하게 숨진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절실하다.

우리는 예부터 사자의 장례를 지극 정성으로 모신다. 그런데 제주 4.3사건 때 숨진 선량한 국민들의 죽음은 아직도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는 진실 앞에 감춰져 현제도 잔존 중이다.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자 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4.3제주 사건 때 숨진 국민들의 명예 회복과 그 대책이 빨리 이루어져 억울하게 숨진 분들과 그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또한 제주 4.3사건은 이렇듯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으니 더욱더 한심스럽다.

제주도 폭동 사건, 제주 4.3사건 등 의견이 분분하다. 사대인지, 폭동인지, 항쟁인지 역사 앞에 분명히 밝히고 제주 민의 한을 매듭지어야 한다.

특별기고

윤선도와 전북의 고장 보길·노화 7개월 제한급수 교환



박현식 안도 부군수

윤선도와 전북의 고장 안도군 보길·노화 주민 8천여명은 지난해 92월부터 올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최장 2일급수 10일단수라는 최악의 물 사용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도 지난 3월에 호자 같은 봄비가 내려 정상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급일 총도라는 섬 지역은 여전히 차량에 물을 실어 여객선 운반을 통해 정수장에 물을 공급중이다.

엄청난 불편에도 불구하고 물 절약 정신을 발휘하고 인내해 주신 지역 주민들

께 깊이 감사드린다. 섬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생수를 보내주신 안도군 재경황우회 등 각계각층의 후원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이번 제한급수 시행하면서 몇 가지 교환을 얻었다.

첫째, 단일 수원지 의존을 탈피하고 추가 수원지를 확보해야 한다.

보길면과 노화읍 주민 8천여명은 보길면에 위치한 부황 수원지에서 모든 물을 공급받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유명 관광지인 펜션과 민박, 식당 등에서 물 사용이 집중되어 있고, 보길 지역의 애기지 못한 가뭄은 양 읍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존 수원지 이외에 제2수원지 축조 검토 및 지하수담 건설을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빗물을 재활용하는 빗물 저장 시설도 검토 중에 있다.

둘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매뉴얼 재정비이다.

기존 저수율 20%대에 제한급수 등을 취하는 대응 매뉴얼을 40%대로 상향시키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다. 식당, 펜션, 민박집 등 상가운영 주민들과 일반가정집 주민들의 제한급수 인식은 상당히 다르며, 지하수와 농업용저수지 물 사용도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행정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장기가뭄 발생시 농업저수지 사용량 고지, 지하수 관정 운영 상황 보고 등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상시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중앙정부, 전남도, 안도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상시 협조 체계 구축이다.

섬 지역은 별도 수원지 확보가 어렵고 육지부와 해저관로 연결도 쉽지 않다. 가능하다고 하여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섬지역의 특수성을 인지

하고 중앙 정부와 관계기관 등과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식수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보길도와 노화도는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윤선도 습결을 간직한 소중한 곳이며, 단백질 보고인 전복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공급하는 식량 자원의 전진기지이기도 하다.

특히, 보길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우리들이 대대로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곳이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과 전국민이 사랑하는 소중한 곳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물 공급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보길·노화에 만 국민된 것이 아닌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보편적인 물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라는 인식을 버리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함께 머리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전남도민일보

등록번호 광주가25(일간)

회장 김경	발행·편집인 전광선	편집국장 김경석
대표전화 062)227-0000	광고문의 062)227-0083	
누리집 www.jndomin.kr	팩스 062)227-0084	
구독료 월 10,000원	인쇄처 (주)엔피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우동 33-4) 소석빌딩 5층 (우)61247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아이에게  
꿈을 읽어 주세요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1:1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